

2017. 11.

# 2017년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관광경제위원회 - 태국)



## 목포시의회

## 목 차

I. 공무 국외연수 개 요 .....	3
II. 연 수 일 정 .....	4
III. 공무 국외연수 총평 .....	5
IV. 주 요 연 수 내 용 .....	13

## I 공무 국외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17. 10. 16.(월) ~ 10. 20.(금) / 3박 5일간
- 연수목적 : 2016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10개권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중 목포시의 「남도 맛 기행」 지역 선정에 따른 대표 관광지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태국의 상품을 살펴보고,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의정활동과 시정정책에 반영
- 연수장소 : 태국
- 연수참여 : 11명 (시의원 7, 의회사무국 3, 목포시청 1)

소 속	직위(급)	성 명
목포시의회	관경경제위원장	이 기 정
	관경경제부위원장	김 귀 선
	관광경제위원	여 인 두
	관광경제위원	정 영 수
	관광경제위원	최 홍 림
	관광경제위원	주 창 선
	관광경제위원	성 혜 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조 한 기
	행정7급	김 명 환
	속기9급	박 소 영
목포시청	관광시설담당	천 윤 대

## II 연수 주요일정

일 자	행선지	시간	주 요 일 정	비고
10.16(월) 1일차	목포	11:00	○ 목포 → 인천공항	한국 2시간 빠름
	인천	17:50	○ 인천공항 집결 및 출국수속	
	태국	19:50	○ 〈인천공항 → 푸켓국제공항 출발〉	
10.17(화) 2일차	태국	02:00	○ 〈푸켓국제공항 도착 → 호텔이동〉	
		03:00	○ 호텔이동 및 투숙	
		14:00	○ 태국 관광청 방문	
		16:00	○ 팡아만 고무나무 농장 견학	
		18:00	○ 호텔이동 및 투숙	
10.18(수) 3일차	태국	오전	○ 조식 후 팡아만 국립공원 이동 ○ 제임스 본드섬 견학	
		오후	○ 파통 이동 및 야시장 견학 ○ 호텔이동 및 투숙	
10.19(목) 4일차	태국	10:00	○ 조식 후 코트라 방곡무역관 이동	
		14:00	-○ 수산식품 가공 시설방문 및 브리핑 - 처리과정 및 개요, 수산물처리 등 브리핑	
		17:50	○ 왓찰롱 사원 방문	
10.20(금) 5일차	태국	01:50	○ 〈푸켓공항 → 인천국제공항 출발〉	
	인천	09:50	○ 인천공항 도착 → 목포 출발	
	목포	15:30	○ 목포 도착 해산	

### Ⅲ 공무국외 연수 총평

#### ● 주제에 맞는 연수추진으로 연수 효율성 증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중심의 공무 국외연수로 태국의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다양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앞으로 우리시의 관광 시스템 개발 정책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연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 ● 해양관광 현안문제 중심 연수 실시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은 행복이고 21세기 관광의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은 지방적인 것이고, 가장 지역적이고 토속적인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목포시를 찾는 내 ·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가장 목포다운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태국은 세계적인 자연자원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아직까지 보다 치밀하면서도 관광객 입장에서의 접근하는 시각이 다소 미흡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보다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유기적인 보완이야말로 관광자원을 훨씬 더 돋보이게 하면서도 최대한의 수입을 증대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 전체가 고민하고 미래해양관광 도시 목포의 관광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연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10월 17일(화) 연수 2일차

오후 : 태국 관광청 방문



금번 연수에 태국의 푸켓 관광청방문하여 직원의 안내로 회의실에서 푸켓의 발전과 특히 관광상품, 도시기반시설, 외국 관광객유치, 환경 등에 관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1시간 정도의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안다만의 진주로 불리는 푸켓은 태국에서 가장 큰 섬 이자 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방콕에서 863km떨어져 있으며 비행기로 1시간20분 육로 약 14시간 거리에 있다, 80년대 개발이 됐고 1992년에 내륙과 연륙되는 다리가 놓이면서 섬 아닌 섬이 됐다 세계적인 휴양지답게 푸켓에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고운백사장, 석회암 절벽, 우거진 숲이 자리하고 주요 해변은 고급 리조트와 주변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휴식을



함께 즐기기에는 최상의 조건이며 섬들로 떠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까지 하면서 연중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자~ 부러워하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경험을 자극 삼아 더욱 분발해야 한다.

한계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보존하고 활용하며, 어떤 것으로 성공을 견인해낼 것인가? 손님들의 발길이 한 번에 머물지 않고 다시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관광에 대해 많은 주장들이 목포에 난무하는 요즘, 중복되는 질문을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실질적인 대안이 어떤 것인가 공무 국외연수를 통하여 집행부에 답을 하고 싶다.

#### ● 10월 17일(화) 연수 2일차

##### 오후 : 팡아만 고무나무 농장 방문

연수 2일차 오후 4시 일정은 팡아만 고무나무 농장 연계프로그램 체험으로 준비되었다.



다양한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자 고무농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라텍스 주원료인 고무수액 추출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 10월 18일(수) 연수 3일차

오전 : 팟아만 해양 국립공원 견학





태국 남부 팡아 주에 위치한 해양 국립공원으로, 팡아 만은 지각 변동으로 생성된 150여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 특징이다. 녹빛의 바다 위에 흩어져 있는 석회암 섬들과 기암 괴석이 풍경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 모습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바다 위로 깎아지른 듯 솟은 석회암 절벽이 인상적이며, 종유동굴도 많아 시 카약을 타고 동굴을 탐사하는 동굴 탐사 투어도 인기가 많다.

팡아 만 해양 국립공원의 수많은 섬 중 관광 코스에서 빠지지 않는 명소는 일명 ‘제임스 본드 섬’이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섬이다. 본래 이름은 ‘못 섬(Nail Island)’이라는 뜻인 타푸 섬이지만, 영화 007시리즈 <황금 총을 가진 사나이>의 촬영 장소로 유명해지면서 영화의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의 이름이 붙었다. 섬의 높이는 약 20m로, 윗부분이 넓은 옥수수 모양을 하고 있다.

팡아 만은 투어 관광객이 많아 반일 코스, 일일 코스, 선셋 코스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일반적인 투어 코스는 부두에서 롱테일 보트를 타고 정글과 제임스 본드 섬을 둘러본 후 이슬람 마을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팡아 만 이곳저곳을 돌아보는 순서로 진행된다.

● 무슬림 마을 방문



무슬림 수상마을의 규모는 꽤나 크며 400여 가족이 살고 있으며, 종교는 태국 국민 90% 이상이 소승불교이고 10% 미만이 무슬림인데 팡아만 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무슬림이다.

또한 태국은 지하수중 석회를 정수하는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모든 식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은 우리나라의 80년대 수준으로 생각된다.

팡아만 해상국립공원 안에 있는 제임스본드 섬이 영화<007>시리즈에 나온 이후 1인당 입장료가 1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영화에 한번 나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바뀐 것인데,

또 하나 예로 들자면 예전에 <tvN 삼시세끼 고창편>이 방영됐었는데 그때 ‘고창’이 계속 언급되고, 고창의 고인돌박물관을 출연자들이 방문하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고 와보고 싶게끔 방송에 비취졌다. 목포지역 카페에도 이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 고창에 다녀왔다고 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 <삼시세끼 목포편>을 찍어서 여러 해산물을 잡아서 요리해서 먹고, 목포의 자연사박물관, 평화광장, 유달산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방송에 보여주면 관광객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 예능프로그램에 1회성으로 ‘목포편’ 해서 한번 방송되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두세 달 계속해서 목포를 노출할 수 있는 TV프로그램을 내보냈으면 좋겠다.

또한 영화도 계속해서 거친 이미지가 아닌 정감 넘치는 목포를 보여주기 위해 영화사업 지원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 4월 24일(일) 연수 4일차 : 문화 비교 체험

<관광지에서의 한국어>



태국에서 우리나라 말을 생각했던 것보다 잘해서 놀랐다. 기본적으로 호텔, 관광기념품 판매소 점원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한국말들을 숙지하고 있는 점이 놀라웠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상품이 많은 곳에는 아예 한국인매니저가 태국직원들에게 기초한국어를 가르치는 듯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았는데 중국어도 곧잘 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지역 음식점에 가면 너무 억센 말투에 타 지역 사람들은 위축된 느낌을 받고, 외국인들은 전혀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문통역사들이 주기적으로 기본적인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쳐주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도 교육받는 장소로 오라고 하면 안 올 테니 위생교육과 함께 영어, 중국어 교육을 현장에서 가르쳐주는 과정)

#### < 문화 비교체험 >





왓찰롱 사원을 구경하면서 화려한 사원들을 보고 있으니 우리나라 사찰이 생각이 났다. 소승불교는 사원이 화려하고, 개인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대승불교는 부처의 힘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구원받으려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 이다, 관광객에게 불교의 템플스테이를 접목하여 참선에 용이한 관광상품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까지는 내국인만 유명한 사찰에서 미약하나마 템플스테이를 이용할 뿐, 외국인에게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다가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목포관광투어에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목포 여행 1박2일 넣어서 목포를 알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3박5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태국의 다양하고 우수한 관광정책과 다양한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여 국제전문을 넓힘으로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 하였으며,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체험한 좋은 점들을 목포시 정책에 반영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진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며 출국을 위해 푸켓 공항으로 이동하였다.